두 원로학자에게서 구산선문 실상 듣는다

한국선학회 10월 27일 좌담회

원로학자들이 구산선문의 실상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는 오는 10월 27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 외솔관 526호실에서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실상(實狀)'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좌담회에는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와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사회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고려시대의 〈선문보장록〉을 자료로 구산선문의 실상을 분석한 바도 있는 선불교 연구자인 정영식 박사, 신라 불교 철학사상연구 전문가인 고영섭 동국대 교수, 고려말 선불교 사학자인 강호선 성신여대 교수, 원간섭기 사원의 기능을 연구한 윤기엽 박사가 참석한다.

이날 좌담에는 '구산선문이 당시에 존재하기는 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부터 훗날 만들어진 역사라면 그 의도는 무엇인지, 구산선문이 현재 조계종의 선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등 가감없는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신규탁 한국선학회장(연세대 교수)는 "'구산선문'은 한국불교를 논할 때에, 종단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주제의 하나"라면서 "좌담회을 통해 학자에게 연구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두 원로의 체험을 학계와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골굴사 문화 콘텐츠 발전 방안 모색한다

1월 28일 골굴사서 학술대회

선무도 본찰이자 전통 석굴사원을 간직한 경주 골굴사의 문화콘텐츠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골굴사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은 오는 10월 28일 골굴사서 '골굴사의 문화와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장재진 동명대 교수가 '골굴사와 축제문화'를, 고상현 조계종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이 '골굴사와 역사문화적 콘텐츠'를, 최원섭 前 금강대 연구교수가 '골굴사와 영화문화콘텐츠 모색'을,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이 '골굴사와 문화콘텐츠 모색'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지금 여기, 화쟁은 가능한가

박태원 교수, 향상포럼서 '현실 화쟁론' 제언

원효의 '門 구분 통한 화쟁'
무조건화 · 절대화 배제 노력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결은
강자 유리함 상쇄해야 가능
'합리의 힘' 종교계 수용해야



원효 스님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화쟁'이다. 쟁론을 화(和)하는 화쟁을 현대사회 문제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총론적 방법론이 제시됐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10월 20일 중앙신도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진행된 향상포럼 10월 발표에서 화쟁사상의 현실 반영에 대한 방안을 내놨다.

박 교수는 '원효와 말 섞기-지금 여기의 원효를 위한 소참' 발제문에서 원효의 화쟁 사상을 분석하고 '지금 여기의 화쟁론'을 제시했다.

원효의 화쟁 사상 특징을 박 교수는 '문(門) 구분'에 있다고 봤다. 박 교수에 따르면 원효의 '문'은 종류 · 유형과 방식 · 측면으로 나눠 번역되는데 이견을 회통해 쟁론을 화쟁할 때 채택한 튼 문의 의미는 방식에 가깝다. 철학적으로는 "견해 · 관점 · 이론의 조건 인과 계열"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원효는 견해와 이론의 문 구분을 통해 불통의 쟁론을 소통의 화쟁으로 바꾸려했다"면서 "이는 인류의 오래된 '무조건화와 절대화'의 언어 사유의 관행을 치유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구분을 통한 화쟁은 견해에 '합리의 힘'을 실을 수 있는 원천인 붓다의 연기 법설을 원효 식으로 계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합리의 힘'을 실을 수 있는 '문 구분을 통한 화쟁'을 통해 화쟁을 '지금 여기'에 소환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전제 조건으로 △견해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려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 중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에 대한 논설은 주목할만 하다. 애초 공정할 수 없고, 유불리가 명확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쟁론은 이뤄지지 어려운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교수는 쟁론 주체들에게 대한 '차별'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게임 규칙처럼 이미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 자가 유리함을 상쇄하는 정도의 차별적 규칙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쟁론적 게임에서 화쟁적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강자가 먼저 선택하도록 해야 공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 사회가 '절대화'에서 '다면화'로 사유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한 박 교수는 종교계가 화쟁의 담론에 응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사회를 화쟁과 통섭의 길에 올려놓는 데는 한국 종교계의 용기있는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전사지서 국보급 금동보살입상 발견

양양군 · 국강고고학硏, 사지 3층석탑 발굴결과 발표

6세기 삼국시대에 조성 추정 보살삼존상 발굴 유일한 사례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주석처인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에서 삼국시대 6세기 경 금동보살삼존불입상〈사진〉이 발견됐다.

양양군(군수 김진하) · (재)국강고고학연구소(소장 차재동)는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 중인 '양양 진전사지 3층석탑(국보 제122호)' 주변 유적서 6세기 경의 국보급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이 출토됐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을 포함하는 사역의 전면을 파악해 사찰의 성격과 범위, 내부 건물터와 규모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 불상은 사찰의 금당지로 추정되는 위치인 삼층석탑의 북측 편에서 발견됐다.

소형의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은 광배 상단과 좌대 일부분이 없어졌으나, 현



높이 8.7cm로 전체적인 모습은 양호하다. 출토 당시 육안으로는 청동으로 추정됐으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기초조사를 하던 중 금동으로 확인됐다.

삼존불은 모두 보살상으로 출토지가 명확한 삼존보살상은 한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앙 본존불에 보살상,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했는데, 본존불에서는 두광과 신광이 모두 양각으로 표현됐다. 본존불과 협시보살 사이의 하단에 인위적인 구멍 2개는 처음 발견되는 사례이다.

광배에는 전체적으로 화염문이 새겨져 있으며, 손 모양은 다섯 손가락을 가지런히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어깨높이까지 올린 모습이다. 삼존불 모두 보살상의 앞면에서 겉옷은 'X'자로 교차하였다가 좌우로 퍼지는 양식이다.

발굴 관계자는 "이 보살상은 6세기인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국보 제85호)'의 화불 · 옷 주름, '금동보살삼존입상(국보 제134호)'의 좌대 · 옷 주름과 유사하며, 세 가닥으로 올라간 보관(寶冠), 'X'자형의 옷 주름, 화불 등으로 미뤄 삼국 시대인 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대에는 음각한 1단의 단판 8엽의 연화문이 관찰되며, 불상과 좌대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주조기법과 도금방법 등은 앞으로 보존처리 과정을 통해 정밀하게 조사하여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보문사 대웅전, 서울 最古 불교건축 확인

지붕공사 중 건륭 12년 상량문 · 복장물 등 발견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보문종 보문사(주지 인태)의 대웅전이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건축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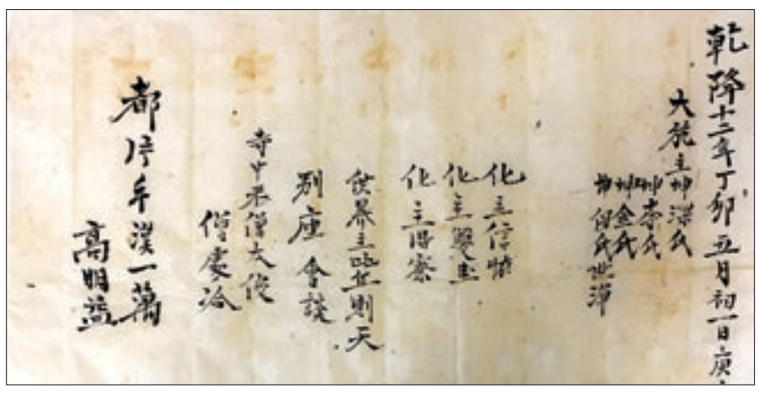
보문사는 "전통사찰 보수 · 정비 사업으로 지난 9월 28일 대웅전 지붕 보수공사를 시행하던 중 종도리에서 완전한 상태의 상량문과 상량복장물을 발견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보문사에 따르면 발견된 상량문은 총 3종이며, 이 외에도 불사에 동참한 시주질, 상평통보 등의 주화 총 100점, 오색실과 황초폭자, 오보(五寶), 복장다라니 등이 발견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3종의 상량문 중 건륭 12년에 작성된 것이다. 건륭 12년은 1747년이며, 이번 발견으로 서울지역 불교건축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상량문이 확인됐다. 대시주로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모두 심씨, 이씨, 김씨, 윤씨 등 여성으로 모두 궁인(宮人)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보문사는 비구 스님들이 소임을 보던 사찰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상량문인 도광 4년(1824), 동치 4년(1865)의 상량문부터는 모든 소임과 대중이 비구니인 것으로 보아 18세기를 거치면서 보문사는 비구니 승방으로 변화했음도 확인됐다.

상량문을 넣는 전통방식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던 것도 중요한 의의다. 이에 대해 보문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시주한 비녀, 가락지 등은 종종 발견됐으나 보문사와 같이 후령통을 만들고 황초폭자로 감싸 불복장한 형태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보문종 보문사 대웅전 지붕 보수공사 중 발견된 상량문 중 하나인 건륭12년(1747) 상량문. 궁인으로 추정되는 시주자 여성들이 성씨들이 적혀 있다. 이번 상량문 발견으로 보문사 대웅전은 서울지역서 가장 오래된 불교건축인 것이 확인됐다.

韓 · 中 · 日 학자들이 본 불교문헌 확장성

동국대 불교학술원 등 19~20일 국제학술대회

한국 고대 · 중세 불교문헌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전승됐으며,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ABC사업단과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 · 토대연구사업팀은 10월 19일, 20일 양일간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한국불교문헌의 정본화와 확장성'을 주제로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일에는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 기념해 '원효 찬술문헌의 전승과 정본화'를 세부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김천학 동국대 HK교수는 '〈기신론소 · 별기〉의 전승과 정본화'를 통해 원효 저술의 한 · 중 · 일에서의 유통과정과 함께 〈별기〉 일부의 정본화를 시도했으며, 아타고 구니야스 도요대학 연구원은 〈무량수경종요〉가 일본에서 평가되는 양상들을 분석했다.

김영석 동국대 연구초빙교수는 일본에서 새로 발굴해 촬영한 〈판비량론〉에 대한 조사 경위와 함께 내용을 분석했다.

20일 학술회의는 '한국 불교문헌의 확장성과 디지털지형도'를 주제로 열렸다. 스에키 후미히코 前 동경대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와 동아시아 주연불교'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동아시아 불교의 흐름을 〈석마하연론〉의 유통을 중심으로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지금까지의 불교 문헌학은 해당 문헌의 내용 이해에만 주로 관심을 쏟았다"면서 "앞으로는 보다 확대된 시각에서 고대 불교문헌의 지식체계가 주변 국가들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